

목포~광양 고속도로 장흥휴게소 상반기 착공

목포와 광양을 잇는 고속도로에 장흥휴게소가 상반기에 착공된다. 29일 장흥군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에 개통된 목포(서영암)~광양간 고속도로(총 연장 106km) 중간지점인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부근에 장흥휴게소가 들어선다. <조감도>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데 이어 휴게소 진입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성 협의(산지전용) 과정이 끝나는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7년 상반기 안으로 장흥휴게소를 준공 시킬 계획이다.

제대로 된 휴게소 없어

이용객 식당 이용 등 불편

호계리 부근 2017년 개소

장흥휴게소는 총 2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7740㎡ 부지에 주유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양방향 복합 휴게소로 세워진다.

현재 목포(서영암)~광양을 잇는 고속도로상에는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에 휴게



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주유 및 '수변구역'으로, 음식점 등 각종 근린시설 허가제한 조건에 묶여 가공식품만 판매하는 편의점과 주유소만 운영돼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로 인해 목포에서 부산방면으로 가는 이용객들은 식사를 하려면 경남 하동에 위치한 삼진강 휴게소를 이용해야 하고, 또한 부산방면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합평 휴게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일보 2012년 5월 31일 10면>

한편 지난 2012년 개통된 목포(서영암)~광양간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날로 늘어나면서 목포, 순천(광양, 여수)지역과 부산, 경남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올 300가구 목표

장흥군 귀농유치 박차

장흥군은 올해 귀농인 유치목표를 300가구(600명)로 설정했다. 장흥군은 2015년 귀농유성 계획을 발표하고 미래 귀농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귀농정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밝혔다.

지난해 귀농·귀촌담당 부서를 신설한 군은 귀농인과 담당 공무원 간의 1대1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체계적인 귀농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일시적인 귀농인구 유치가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점검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끔 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귀농인들은 귀농인연합회를 구성해 예비 귀농인들의 멘토 역할을 맡아 지역 분위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하늘이 내린 좁'...장흥 천혜향 수확 한창

최근 장흥군 회진면 시설하우스에서 신품종 감귤인 '천혜향(天惠香)' 수확이 한창이다. '하늘이 내린 향기'라고 불리는 천혜향은 일반 감귤에 비해 당도가 훨씬 높고 과즙이 매우 풍부하다. <장흥군 제공>

강진 지역인재 육성

장학기금 150억 넘어서

강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액이 150억원을 넘어섰다. 강진 군민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 강진 원 이사장 취임 후 자발적인 '1군민 1계좌 갖기 운동'으로 기부문화가 정착된 결과로 평가했다. 고정기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장학기금 조성액이 전년도보다 150%나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군민장학재단은 지난 2005년 4월 설립 이래 좋은 교육환경 조성 등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는 각종 장학금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관내 402명의 학생들에게 총 2억5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 마량항 증설 쾌속질주 6억원 들여 실시설계

서남해안권 관광거점으로 떠오른 강진 마량항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마량항 물량장 잔교(길이 470m·폭 20m)를 증설하는 것으로, 올해 6억 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증설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마량항은 강진 마량과 고군 완도간 연륙·연도교 설치로 완도군 약산, 신지, 고군 등과 연결됨으로 교통여건 등 접근성이 높아져 물동량이 급증했다. 앞으로 고

군도~완도 신지 연도교 개통과 마량 신마항 개발과 수산물 도요시장 개설 등이 맞물린 상승효과로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마량항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은 오는 5월에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감성돔, 낙지 등 수산물을 활용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마량항 수산물 도요시장을 개장한다. 이를 통해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마량항의 다양한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산자원 육성공간으로 조성시킬 계획이다.

마량 수산물 도요시장과 토요일농산물 연계시키면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10년부터 190억원을 들여 개발 중인 마량 신마항이 준공되면 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런 관광객 증가와 물동량 급증은 향후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장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마량~제주간 여객선 출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사장과 노동조합 신은식 지회장, 김병수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안전불편신고센터 발족식을 갖고 무재해 작업장 조성을 다짐하고 있다.

작업장 무재해, 노사 따로 없다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불편 신고센터' 발족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하경진) 노사가 조선업계 최초로 '안전불편 신고센터'를 발족하고 무재해 작업장 조성에 나섰다.

안전불편 신고센터는 60여 명의 안전지킴이로 구성됐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는 본연의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도중 발견한 각종 불안전 요소와 안전 관련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해 센터에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실제 작업자의 시각에서 현장의 불안전 요소를 발굴해 처리함으로써 기존 안전 관련 부서가 시행하던 인선활동의 시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조직됐다. 센터장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노조 지회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김병수씨가 맡아 현장 작업자와 소통

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불편 신고센터는 제보를 토대로 면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활동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지킴이에게는 스티커와 가슴표를 제작해 지급하는 한편 우수활동자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안전불편 신고센터의 발족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에 두고 올 사업목표 달성에 매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노사가 한 마음으로 무재해 작업장 조성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강진 다산 사의재에 한옥체험관 건립

국토부 한옥건축 지원 공모사업 선정 국비 2억원 확보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시 4년간 묵었던 사의재(四宜齋)에 한옥체험관이 건립된다. 강진군은 "국토교통부 주관의 '2015년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 공모사업'에 사의재 다산생활 체험관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총 7억원을 들여 150㎡의 면적에 강당과 식당, 안채와 사랑채를 갖춘 다산생활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한옥체험 숙박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주막채와 바깥채, 초정 연못 등의 사의재를 복원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사의재에서 청림교육으로 인기가 높은 다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성여행 일반지의 필수코스라 만들어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특히 다산의 실학사상에 큰 영향을 준



주모와 주막 등의 역사스토리를 간직한 관광명소이자 남도주막의 롤모델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강진은 동성리에 자리한 사의재는 다산 선생이 강진에 유배됐을 때 주막집 주인 할머니의 배려로 4년 동안 거거하며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을 집필하고 제자들을 교육하던 곳이다. '네 가지(맑은 생각·엄숙한 용모·과묵한 말씨·신중함)를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등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회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25억(보2억 월1,000만)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남구 노대동 대지 405㎡ 8억5천
- 광산구 우산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618㎡ 1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32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000원 (0)적장 주거장 적합, 시설완비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주월동 한양아파트

1층 / 28평 / 방3개
정남향 / 학군최상 / 신혼부부적합
내부 리모델링 즉시 입주

- ◆ 매매 1억2500만원
- ◆ 임대 3000만원/45만원(5000만원/30만원)

상가 임대

▶ 서구 치평동 중흥 스카이31
1층 / 31평
800세대 / 시청입구
우측 GS편의점 입점
즉시 임대가 가능 / 상권 최상
권리금 없음(미용실, 화장품, 옷가게 적합)
◆ 임대 5000만원 / 350만원

땅 매매

▶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 900평
생산녹지 / 나무식재 가능
투자 가치 좋음

- ◆ 융자 2억4000만원
- ◆ 매가 3억6000만원

010-8676-1900